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7호 [루게 제23454호] 주제100 (2011)년 5월 17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지!

애국헌신의 전설적인 강행군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위대한 령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쫓피우신 후 경공업발전을 위해 큰 80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97 (2008)년 12월 24일 천리마의 고향 강산을 찾으신 새롭고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켜주신데 이어 전설적인 현지지도강행군으로 경공업발전의 전성기를 마련하시였다.

낮이나 밤이나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없는 사색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깊은 사연을 전하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으로부터 압록강변의 신발생산기지, 백두산기슭의 감자가공공장으로부터 사리원시의 각지 많은 식료생산 협동조합을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경공업발전을 위해 이어가신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참으로 전후무후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발단을 열어놓으신 후 경공업발전을 위해 찾으신 단위수는 큰 80개에 달한다.

이것은 그이께서 인민부대들을 찾아 건설길을 주름잡으시며 권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급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정력적으로 현지지도하시면서 경공업발전을 위해 매달 평균 두께 이상의 단위를 찾으셨던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무엇보다도 경공업부문에 큰 힘

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첨단기술을 갖추고 새로 건설되거나 현대적으로 꾸러진 경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어 새 세기 경공업발전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밝혀주시였다.

주체 98 (2009)년 1월 천리마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새로 건설된 평양염광장을 찾으시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대 경공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말가루가공공장, 회령식료가공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과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의 공장을 하나 세우되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최상의 수준으로 인민들이 실지력을 볼수 있도록 실리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현대적인 경공업생산기지가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동강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의 기술적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생산을 높이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시였고 평양양말공장에 최신식설비들로 충실히 꾸러진 너자양말직장을 찾으시어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 등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한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이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우리는 꽃마다에서 우리 경공업부문 일꾼들이 기성관점에서 대답하게 벗어나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것을 창조할수 있는 인민의 참된 복자가 되도록 고무해주시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비롯한 대학들과 과학연구기관들,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경공업부문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각 책임직업도 도와주도로서 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공업부문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경공업발전을 위한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인 발사로 온 나라가 환희에 넘쳐있던 때 삼일포탄산물공장을 찾으시어 자신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경공업발전의 새로운 불씨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이 불씨가 온 나라에 세찬 불길로 타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삼일포탄산물공장과 같은 실리있는 공장들을 각 도들에 건설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자강도의 장자산종합식료공장, 함경남도의 백운산종합식료공장, 함경북도의 무산식료공장, 수성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현지에 나가시어 그 생활력을 확충하시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착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황금산의 세력

을 펼쳐주시는 장정군을 현지지도 하시면서도 산간지대의 크지 않은 식료공장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며 이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지방공업발전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불길을 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성직물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사리원기초식품공장 등 각지 지방공업공장을 찾으신데도 이렇듯 지방공업을 도당해야 할 현대화의 기준과 방향을 확고히 밝히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공업부문의 지능을 이루고있는 공장들로부터 지방의 자그마한 생산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온 나라에 경공업발전의 열풍이 세차게 불어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몰라보게 전변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어는 우리 나라의 명주실생산업에서 큰 창조를 이룩하고있는것만은 공장의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고 나라의 방직기계공장의 모체인 평양방직기계공장을 찾으시어는 여러 방직공장들에서 요구하는 질 좋은 직물을 제때에 생산공급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대동강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는 생산공정을 더 현대적으로 꾸러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하도록 하시였고 온 한민군 부대의 종합식료공장에 새로 꾸러

진 장정일생산공정을 돌아보실 때에도 기술관리,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생산자들의 기술적능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방의 해산발광장에 가시어는 친히 《광강도습장화》라는 사연깊은 제품을 찾아주시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착화하도록 하시였고 신의주종합생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초콜릿까지 몸소 살펴보시면서 지방자재와 농부산물을 가지고 땀이되고 쓸모있는 갖가지 초콜릿제품을 만들어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대담한 작전을 펼쳐주시고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세우며 달려가시는 장군님께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일관한 혁명도방식은 경공업부문에서도 더욱더 비약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공장에 새로 건설된 위생용품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실리주의원칙에 맞게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생산을 과학화함으로써 제품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고 어느 한 위생용품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경공업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4월까지 점령하여 할 중요생산공정의 CNC화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까지 일일

이 가르쳐주시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모든 부문 사업에서 언제나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비약의 지름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경공업발전의 중요한 열쇠로 내세우고 진행하신 불철주야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려는 숭고한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주체철용방로 건설로 조선사람의 본래를 시위한 김일의 로동계급을 찾아가시어 그들이 인민생활대고조의 선봉에서 더욱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화학공업의 발전이자 곧 경공업발전이라고 보시고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2. 8비날론연합기업소를 여러차례 찾으시어 비날론중간제품에서 생산한 수많은 제품들을 보아주시며 나라의 화학공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경공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8월 3일 우리 당의 8월 3일인민소비품방직제시 26호에 즈음하여 열린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며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여주시것은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전략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돌아보시며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여주시것은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전략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무엇보다도 경공업부문에 큰 힘

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첨단기술을 갖추고 새로 건설되거나 현대적으로 꾸러진 경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어 새 세기 경공업발전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밝혀주시였다.

주체 98 (2009)년 1월 천리마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새로 건설된 평양염광장을 찾으시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대 경공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말가루가공공장, 회령식료가공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과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의 공장을 하나 세우되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최상의 수준으로 인민들이 실지력을 볼수 있도록 실리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현대적인 경공업생산기지가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동강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의 기술적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생산을 높이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시였고 평양양말공장에 최신식설비들로 충실히 꾸러진 너자양말직장을 찾으시어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 등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한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이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우리는 꽃마다에서 우리 경공업부문 일꾼들이 기성관점에서 대답하게 벗어나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것을 창조할수 있는 인민의 참된 복자가 되도록 고무해주시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비롯한 대학들과 과학연구기관들,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경공업부문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각 책임직업도 도와주도로서 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공업부문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경공업발전을 위한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인 발사로 온 나라가 환희에 넘쳐있던 때 삼일포탄산물공장을 찾으시어 자신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경공업발전의 새로운 불씨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이 불씨가 온 나라에 세찬 불길로 타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삼일포탄산물공장과 같은 실리있는 공장들을 각 도들에 건설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자강도의 장자산종합식료공장, 함경남도의 백운산종합식료공장, 함경북도의 무산식료공장, 수성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현지에 나가시어 그 생활력을 확충하시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착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황금산의 세력

을 펼쳐주시는 장정군을 현지지도 하시면서도 산간지대의 크지 않은 식료공장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며 이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지방공업발전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불길을 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성직물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사리원기초식품공장 등 각지 지방공업공장을 찾으신데도 이렇듯 지방공업을 도당해야 할 현대화의 기준과 방향을 확고히 밝히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공업부문의 지능을 이루고있는 공장들로부터 지방의 자그마한 생산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온 나라에 경공업발전의 열풍이 세차게 불어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몰라보게 전변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어는 우리 나라의 명주실생산업에서 큰 창조를 이룩하고있는것만은 공장의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고 나라의 방직기계공장의 모체인 평양방직기계공장을 찾으시어는 여러 방직공장들에서 요구하는 질 좋은 직물을 제때에 생산공급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대동강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는 생산공정을 더 현대적으로 꾸러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하도록 하시였고 온 한민군 부대의 종합식료공장에 새로 꾸러

진 장정일생산공정을 돌아보실 때에도 기술관리,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생산자들의 기술적능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방의 해산발광장에 가시어는 친히 《광강도습장화》라는 사연깊은 제품을 찾아주시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착화하도록 하시였고 신의주종합생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초콜릿까지 몸소 살펴보시면서 지방자재와 농부산물을 가지고 땀이되고 쓸모있는 갖가지 초콜릿제품을 만들어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대담한 작전을 펼쳐주시고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세우며 달려가시는 장군님께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일관한 혁명도방식은 경공업부문에서도 더욱더 비약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공장에 새로 건설된 위생용품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실리주의원칙에 맞게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생산을 과학화함으로써 제품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고 어느 한 위생용품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경공업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4월까지 점령하여 할 중요생산공정의 CNC화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까지 일일

이 가르쳐주시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모든 부문 사업에서 언제나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비약의 지름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경공업발전의 중요한 열쇠로 내세우고 진행하신 불철주야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려는 숭고한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주체철용방로 건설로 조선사람의 본래를 시위한 김일의 로동계급을 찾아가시어 그들이 인민생활대고조의 선봉에서 더욱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화학공업의 발전이자 곧 경공업발전이라고 보시고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2. 8비날론연합기업소를 여러차례 찾으시어 비날론중간제품에서 생산한 수많은 제품들을 보아주시며 나라의 화학공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경공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8월 3일 우리 당의 8월 3일인민소비품방직제시 26호에 즈음하여 열린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며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여주시것은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전략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돌아보시며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여주시것은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전략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경공업발전의 강행군령도를 따라 동에서 인민생활대진군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비료와 화학제품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자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중공업원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중공업원결기모임이 16일에 진행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홍인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안국태, 연합기업소일꾼들과 중공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정숙의 보고가 이어 지베인 조정철, 부기 사장 김성문, 직장장 전정숙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2개년공정건설을 성과

적으로 끝낸 남흥로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료공업을 주체화할 실현하고 비료생산을 늘일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은 나라의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항구적으로 불어넣어주시어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

하신 전후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가스화공정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따르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비료를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전반적생산공정을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에 올려세우기 위한 최첨단과업들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 높이 가지는 새 기술들을 널리 도입하며 PP염색수공장을 꾸러 경공업원료와 화학제품들이 쏟아지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보급을 활발히 운영하여 일꾼들과 중공업원들의 기술적수준을 끌어올리며 출신기지와 청춘원 등의 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올해에 비료와 화학제품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들끓는 현실에서 과학연구활동 활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중공업원결기모임이 16일에 진행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홍인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안국태, 연합기업소일꾼들과 중공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정숙의 보고가 이어 지베인 조정철, 부기 사장 김성문, 직장장 전정숙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2개년공정건설을 성과

적으로 끝낸 남흥로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료공업을 주체화할 실현하고 비료생산을 늘일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은 나라의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항구적으로 불어넣어주시어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

하신 전후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가스화공정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따르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비료를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전반적생산공정을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에 올려세우기 위한 최첨단과업들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 높이 가지는 새 기술들을 널리 도입하며 PP염색수공장을 꾸러 경공업원료와 화학제품들이 쏟아지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보급을 활발히 운영하여 일꾼들과 중공업원들의 기술적수준을 끌어올리며 출신기지와 청춘원 등의 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올해에 비료와 화학제품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대학들의 학생들과 농업,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다.》

대학조직들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대고조전투쟁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온이 나게 잘 이끌어주도록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을 과격하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일차하고 김책화학연합기업소의 전후적과업들을 벌려서 선진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교원, 연구사들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대학들의 학생들과 농업,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다.》

대학조직들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대고조전투쟁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온이 나게 잘 이끌어주도록 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을 공원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나라의 보배들이라고 하신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책화학연합기업소, 평양상강기공공장, 평양무도전차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달려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선을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대학들의 학생들과 농업,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다.》

대학조직들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대고조전투쟁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온이 나게 잘 이끌어주도록 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을 공원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나라의 보배들이라고 하신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책화학연합기업소, 평양상강기공공장, 평양무도전차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달려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선을

평북땅에 청춘과원이 일떠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과수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자면 모든 과일생산단위들에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처럼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평안북도 청춘과원이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신의주시에 위치한 송탄과수농장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였다. 올해에만도 160여 정묘의 과수밭이 새로 조성됨으로써 이곳에는 원형의 배리와

농장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긍지와 용기를 넘쳐 과수농장건설에 탐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그리하여 올해에만도 45만 5 000m에 이르는 방대한 구간에 전조식구덩이를 파고 1만 5 000t의 퇴비를 넣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치러진 토랑만 해도 36만 4 000m나 된다. 도급기관 일꾼들도 포진도 및 배수공사에 한몫 단단히 하였다.

과수원합총회사의 일꾼들은 자주 현지에 내려가 농장을 전망성있게 꾸리는 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이들의 기술적도와 방조에 의하여 사과, 추리, 배, 복숭아, 살구 등 다양한 품

종의 과일나무를 지대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이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과수농장의 주인이 된 높은 영예와 책임감을 안고 나무들의 사름들을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를 정성다해 심어나갔다. 하여 두해사이에서 무려 수백정보의 과수밭이 조성되였다.

신심과 락애에 넘쳐 아름다운 재림을 앞당겨가는 송탄과수농장의 농업근로자들과 신의주시 인민들의 힘찬 투쟁은 머지않아 서북편의 국경도시에 더욱더 훌륭한 선경을 펼쳐놓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순영 사진 특파기자 송창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대학들의 학생들과 농업,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다.》

대학조직들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대고조전투쟁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온이 나게 잘 이끌어주도록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을 과격하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일차하고 김책화학연합기업소의 전후적과업들을 벌려서 선진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교원, 연구사들은

파감한 공격전으로 높은 생산실적 기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과수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자면 모든 과일생산단위들에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처럼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평안북도 청춘과원이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신의주시에 위치한 송탄과수농장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였다. 올해에만도 160여 정묘의 과수밭이 새로 조성됨으로써 이곳에는 원형의 배리와

농장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긍지와 용기를 넘쳐 과수농장건설에 탐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그리하여 올해에만도 45만 5 000m에 이르는 방대한 구간에 전조식구덩이를 파고 1만 5 000t의 퇴비를 넣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치러진 토랑만 해도 36만 4 000m나 된다. 도급기관 일꾼들도 포진도 및 배수공사에 한몫 단단히 하였다.

과수원합총회사의 일꾼들은 자주 현지에 내려가 농장을 전망성있게 꾸리는 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이들의 기술적도와 방조에 의하여 사과, 추리, 배, 복숭아, 살구 등 다양한 품

종의 과일나무를 지대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이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과수농장의 주인이 된 높은 영예와 책임감을 안고 나무들의 사름들을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를 정성다해 심어나갔다. 하여 두해사이에서 무려 수백정보의 과수밭이 조성되였다.

신심과 락애에 넘쳐 아름다운 재림을 앞당겨가는 송탄과수농장의 농업근로자들과 신의주시 인민들의 힘찬 투쟁은 머지않아 서북편의 국경도시에 더욱더 훌륭한 선경을 펼쳐놓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순영 사진 특파기자 송창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대학들의 학생들과 농업,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다.》

대학조직들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대고조전투쟁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온이 나게 잘 이끌어주도록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을 과격하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일차하고 김책화학연합기업소의 전후적과업들을 벌려서 선진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교원, 연구사들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대학들의 학생들과 농업,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다.》

대학조직들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대고조전투쟁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온이 나게 잘 이끌어주도록 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을 공원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나라의 보배들이라고 하신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책화학연합기업소, 평양상강기공공장, 평양무도전차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달려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선을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대학들의 학생들과 농업,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다.》

대학조직들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대고조전투쟁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온이 나게 잘 이끌어주도록 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을 공원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나라의 보배들이라고 하신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책화학연합기업소, 평양상강기공공장, 평양무도전차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달려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선을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대학들의 학생들과 농업,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다.》

대학조직들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대고조전투쟁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온이 나게 잘 이끌어주도록 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을 공원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나라의 보배들이라고 하신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책화학연합기업소, 평양상강기공공장, 평양무도전차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달려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선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98 (2009)년 11월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송탄과수에 낳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신의주시민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뜻을 심장에 새긴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과수

농장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긍지와 용기를 넘쳐 과수농장건설에 탐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그리하여 올해에만도 45만 5 000m에 이르는 방대한 구간에 전조식구덩이를 파고 1만 5 000t의 퇴비를 넣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치러진 토랑만 해도 36만 4 000m나 된다. 도급기관 일꾼들도 포진도 및 배수공사에 한몫 단단히 하였다.

과수원합총회사의 일꾼들은 자주 현지에 내려가 농장을 전망성있게 꾸리는 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이들의 기술적도와 방조에 의하여 사과, 추리, 배, 복숭아, 살구 등 다양한 품

종의 과일나무를 지대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이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과수농장의 주인이 된 높은 영예와 책임감을 안고 나무들의 사름들을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를 정성다해 심어나갔다. 하여 두해사이에서 무려 수백정보의 과수밭이 조성되였다.

신심과 락애에 넘쳐 아름다운 재림을 앞당겨가는 송탄과수농장의 농업근로자들과 신의주시 인민들의 힘찬 투쟁은 머지않아 서북편의 국경도시에 더욱더 훌륭한 선경을 펼쳐놓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순영 사진 특파기자 송창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대학들의 학생들과 농업, 인민경제의 선봉자로, 기초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다.》

대학조직들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그들이 대고조전투쟁에 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온이 나게 잘 이끌어주도록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을 과격하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일차하고 김책화학연합기업소의 전후적

따사로운 태양의 빛밭아래 활짝 피어나는 재능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재간둥이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의 뛰어난 재간둥이들인 구대홍, 김혁일어린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서예와 그림 솜씨를 보아주시며 행복한 때를 추억해주시는 이야기를 기억하셨다.

태양의 촉촉속에 재능의 나뭇잎 활짝 펼쳐서 그들이 어느덧 신의주고등예술전문학교 중학반 학생이 되었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구대홍, 김혁일학생들과 신의주시 은정유치원의 한성무, 봉화화강공공유치원의 김진혁 어린이들이 올린 그림, 붓글씨 작품들을 보아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린 구대홍, 김혁일학생들과 한성무, 김진혁어린이들의 그림, 붓글씨 작품마다 태양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누구나 다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꽃피워가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 아름답게 비추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집단 의 위력을 적극 발휘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그 리한 싸움을 적극 조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간다.》

구대홍학생이 붉은기제로 힘 있게 쓴 붓글씨작품 《강성부흥아리랑》, 《조선은 결실하면 한다》, 《역설 뿌리》, 김혁일학생의 소묘작품 《돌려대인 우리 엄마》 등을 보면볼수록 어린 나이에 벌써 오늘의 들끓는 시대를 그대로 작품에 표현할 줄 아는 이들의 능력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김진혁, 한성무어린이들의 붓글씨작품 《더 좋은 매일》, 《해님과 아기별》, 《복받은 우

리》, 《우리의 꿈》, 《승리의 축로》, 《장군님의 사랑》 등에서는 아버지장군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 아득하고 조국을 떠날때는 훌륭한 인재들로 준비해갈 결의가 엿보인다.

자그마한 손에 큼직한 붓을 들고 바른 글씨와 반흔림체, 흘림체의 글자들을 획은 물론 자음과 모음의 균형까지 조화롭게 맞추며 써나가는 재간둥이들의 솜씨는 서예전문가들 못지 않다.

훌륭한 재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기 마련이다.

신의주고등예술전문학교에서 구대홍, 김혁일학생들을 처음부터 맡아 5년동안 전문교 육을 주시고있는 교원 황영식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천성적인 소질이 있다고 하여도 천열이 없으면 수재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왕성한 정열을 가지고 부단한 반복과정을 거쳐야만이 누구나 볼수 없는 전문과적인 눈을 가지고 사물현상을 감각적으로 정확히 관찰할수 있습니다.》

수재는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우량품종을 심어놓고서도 언제나 발바닥을 떠날줄 모르고 따돌려 가우어가는 실용근처형 재자의 모든것을 다 바쳐 재능의 싹을 키워가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교육자들이 있어야 한다.

황영식동무는 그들의 나이에 따르는 심리특성, 개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데 기초하여 교육과정안을 세웠으며 탐구적인 흥남시동무와 협동

하여 일반기초과목교육에 큰 관심을 돌렸다. 알고있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애어린 나이에 수학과 생물, 역사와 지리를 비롯하여 일반기초지식과 상식을 필요로 하는 미술에 정통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일반기초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니 그들의 시야가 어른들 못지 않게 넓어지는것이 확연히 알렸다.

이에 맞게 그는 실습을 자주 조직하였으며 그들에게 강성대국건설대전으로 표출되는 현실을 함축하여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바치었다. 실례가 꽃피는 봄이면 그들과 함께 파수원을 비롯하여 봄의 정서를 절제 자아내는 여려움을 일단 붓을 현상들에 대한 표상을 작품에 능란하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학교에서는 그들이 중학반에 올라와서부터는 상급학년학생들과 같이 전문교육을 받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그렇게 하니 단번에 성공작이라고 할수 있는 글자들을 적적 써내려 오던 재간둥이들이 되고있는것이였다.

수 있어서 유익하였다. 이 과정에 나아가 어린것으로 하여 사물현상에 대한 대비관찰 등이 잡되지 않아 예를 먹던 그들이 예상의 모든 측면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유치원단계에서의 수재교육은 교육자들이 보다 세심하고 책임성을 높일것을 요구한다. 이 단계에서는 재능의 싹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처음부터 진발을 바로 신기는것이 보다 중요하다.

봉화화강공공유치원 원장 리복훈동무와 교양원 리화동무의 교육과정을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김진혁어린이는 어느때는 장난이 너무 세차 부모들과 교양원들의 속을 적지 않게 태우곤 하였다. 그렇지만 일단 붓을 쥐면 침착해져서 바늘끝에 물이 있어있듯 바늘끝에 온눈을 쏟아붓는 진혁이에게 이들은 거의 1년동안 희스기련습을 부단히 반복시켰다. 그렇게 한 단을 글씨를 적적 써내려 오던 재간둥이들이 되고있는것이였다.

진혁이가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리화동무는 그에게 글자를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주고 재가 쓴 글씨를 자기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그렇게 하니 그에게는 자기의 우월감을 찾아내어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날을 따라 높아졌고 우정은 적극 살리면서 결함을 인차 극복해나가게 되었다.

신의주시 은정유치원 교양원 리화동무는 한성무어린이에게 붓글씨를 배워주는 과정에 우리 말 자음과 모음의 획모양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직관법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같은 자음과 모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글자에 들어가는가에 따라 모양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는것을 어린이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는 많은 품을 들여 마분지로 각이한 획모양을 만들었다. 그것을 한성무어린이의 획쓰기연습에 리용하니 그 효과는 대단히 좋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판을 칭찬해 새기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 기울인 참된 교육자들의 열정과 헌

신이 무겁게 실려있어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를 더욱 흥분시켰건은 뛰어난 재간둥이들이 로동자, 사무원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이였다.

김진혁어린이의 아버지는 영애군이다. 사회와 이웃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침상에 누워있던 그가 아들의 재능을 꽃피워주는 우리 당의 품이 너무 고마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무엇인가 보답하겠다고 진혁이와 경쟁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 누구나 다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구대홍, 김혁일학생들과 한성무, 김진혁어린이들과 같은 뛰어난 수재들이 나올수 있다.

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며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어 이 땅우에는 뛰어난 재간둥이들이 계속 늘어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경철

평양시제1인민병원 의사 한평민동무

인생에서 하루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하루가 인간의 인생을 보여주고도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려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저녁무렵이다. 평양시제1인민병원 문을 나서기 바쁘게 민중동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 신장내과 의사인 한평민동무이다. 그는 지금 영애군의 집을 가고있다. 곁을 계속하는 그의 머릿속에 한평민동무를 처음 알게 되던 일이 떠올랐다.

10년전 어느날 아침일찍 병원에 도착한 한평민동무는 한 인민군장령을 만나게 되었다. 그날 장령은 그에게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평민동무는 입부수행중 뜻밖에 위급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수많은 전우들을 구원하였다. 여러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의욕에는 그에게 하반신마비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처녀가 그의 일생의 방조자가 될것을 결심해 나갔다. 한평민동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어제의날의 당당간호원을 안해로 맞이하게 되었다.

한평민동무는 그대 장령이 자기의 손을 꼭 잡으며 이곳 병원의사진생들에게 우리 광혼이를 부탁한다고 했던 말을 되새겨보았다. 그리고 그를 자기 치료하겠다고 선포한 말이 나사던 일도 돌이켜보았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1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한평민동무에 대한 치료로서는 많은 전진이 있었지만, 늘 자리에 누워있던 그가 이제는 제법

으로 일어설수 있게 된것이다. 자식을 볼수 없다면 그에게 표정이라는 귀여운 자식까지 생겼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손에서 지팡이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한평민동무의 가슴속에는 자기의 사랑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자책감이 갈마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한평민동무의 집문 앞에는 한평민동무의 아들인 리영수동무가 반겨맞았다. 어린이를 데려와서 치료에 전심하는 한평민동무를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뜨거웠던 고여올랐다.

그에게는 몇해전 이른 새벽 억수로 쏟아지는 비에 온몸이 젖은 한평민동무를 입원실에서 맞이하던 때의 일이 되새겨졌다.

《왜 그러지 오늘 팔뚝이한테 무슨일이 생겼길래 그러냐...》

그녀는 한평민동무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며 누워있던 한평민동무가 불시에 몸을 추주었다.

《형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났었다. 한평민동무가 드디어 일어나 앉은것이다. 불보다 뜨거운 사랑이란 이런것이었겠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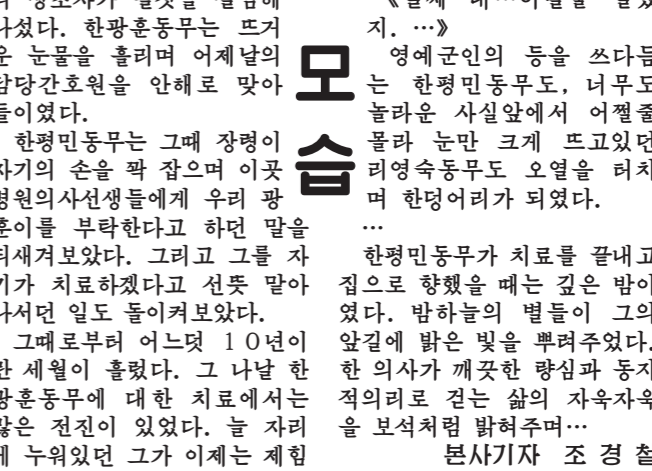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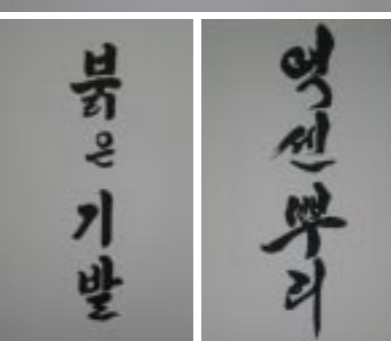
《글세 내...이럴줄 알았지...》

영애군의 등을 쓰다듬는 한평민동무도, 너무도 놀라운 사실앞에서 얼얼해질라 눈만 크게 뜨고있던 리영수동무도 오열을 퍼뜨리며 한평민동무가 되었다.

한평민동무가 치료를 끝내고 집으로 향했을 때는 깊은 밤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앞길에 밝은 빛을 뿌려주었다. 한 의사가 깨끗한 란과 동지적의리로 보는 삶의 자동자속을 보석처럼 밝혀주며...

본사기자 조경철

해님과아기별



제14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제14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연설자들은 제14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람회기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다방면적인 경제무역활동과 과학기술교류가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서 참가자들이 폭넓은 접촉을 통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우리 나라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와 중국, 도이쉴란드, 말레이시아, 몽골, 수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벨기에, 중국대북의 화사들을 비롯한 전시품들을 돌아보았다.

이날 제14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과 관련한 연회가 평양고려호텔에서 있었다.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

리수덕원산교원대학에서 교직원, 학생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소년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계승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장대문명과 관련된것은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대학원들은 교직원, 학생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신념으로 체득하게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대학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의 주요기틀과 국가적기념일들에 수령결사옹위는 선군시대 교육자, 청년전위들의 첫째가는 의무라는 주제의 집중강습과 해설담화, 교육경험토론회, 교수경연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사상과목들의 교수수준을 더욱 높여 학생들이 혁명적수령관취합과 혁명투사의 근본문제에 대한 과학리론적인 인식을 깊이하게 하고있다. 또한

수령결사옹위를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리수덕원산교원대학에서

선군사상학습을 위한 참고자료집을 집필하여 학생들이 읽게 하되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고있다.

지난 2월 대학에서는 선군사상분담학습경연회를 진행하였다.

연단에 나선 출연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본질과 정당성, 생활력을 실제적으로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실들과 결부하여 체계적으로 론리정연하게 해설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후,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대학에서는 이것을 충실성의 산모범을 통한 교양사업의 좋은 계기로 보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선군시대 교육자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졸업생들의 대학시기 학습과 생활자료로, 해당 당조직들에서 보내온 편지내용들과 결부하여 실감있게 진행되는 교양사업들은 학생들이 그들처럼 청년시절을 이르고 힘드 초소에서 값있게 보낼 결의를 가다듬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대학에서는 담사와 참관을 통한 교양사업도 잘하고있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선군혁명명도업적교양을 통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선군혁명명도업적교양을 통하여 교직원, 학생들은 선군의 빛바람에 떠서만 자기들의 과학기술재능도, 희망도 활짝 꽃피우고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교원 류영애동무가 가슴속에서 불타는 충정을 담아 창작한 글자품 《축복받은 나의 삶》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오던 교원의 글자품들, 얼마전 최전연의 교직원들에 탄원해오던 박소연, 리수련, 서경희동무들 비롯한 10여명의 졸업생들, 자력강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근면적인 전화를 이룩한 교직원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길에 몇몇한 삶의 자욱을 남기려는것은 이곳 인민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하나같은 열망이다.

그 열망을 안고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교육사업에서 자랑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은남



박지혁 학생 제2차 국제예술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 성취

【모스크바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의 박지혁학생이 제2차 국제예술올림픽 피아노부류경기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7일부 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올림피아드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도이쉴란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몰도바 등 10여개 나라와 지역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13살 난 박지혁학생은 독특한 연주기법으로 곡상의 요소를 잘 살림으로써 심사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2등을 한 그에게 첩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심장에 새긴 당부

구성시 새날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충을 잡고 조국보위의 초소에서있는것을 더 없는 열의로 여기며 충대로서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보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구성시 새날중학교를 찾았을 때였다. 교정에서는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모임이 진행되고있었다. 조국보위초대로 달려가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값높은 삶을 빛내일 불라는 결의를 다지고있는 학생청년들...

뜨거운 조국보위의로 가슴 베풀어는 미려운 제자들에게 학교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우리 선생님들의 이름으로 전체 졸업생동무들에게 부탁하고싶습니다. 동무들이 안겨주신 사랑의 품이 어떻게 마련되고 지켜졌는가를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신장으로 절감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길에 충성을 아낌없이 바쳐달라고말입니다.》

모교는 언제나 동무들의 위훈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생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 할 참된 삶의 진리를 학생들의 심장속에 새겨주는 절절한 초소였다.

교문을 나설 제자들에게 나서자란 정든 고향과 모교의 절절한 당부를 잊지 말고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충후관영을 되풀이하는 간곡한 당부를 직은 수첩들을 안겨주는 스승들의 모습도 있었고 영웅이 되어 고향과 선생님 앞에 몇몇이 나서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졸업생들의 얼굴도 보았다.

이어 교직원들과 전체 졸업생들이 출연하는 예술소품무대가 펼쳐졌다.

노래 《동무들이 군대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오만추장에게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까부스 빈 사이드 오만추장국 추장에게 8일 리혁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인사로 전하여 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또한 김영남동지에 게 인사로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추장은 자신과 오만정부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중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정주철도분국에서 중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분국에서는 일군들부터가 앞장서서 시대의 진군가들이 일어나도록 울려 퍼지도록 하는 한편 모든 졸업생들이 중중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정주철년역, 정주철길대, 정주철관차대를 비롯하여 분국의 수습생들이 출연하는 예술소품경연이 진행되었다.

다채롭게 진행되는 중중문화예술활동은 일군들과 수습생들이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고무하고있다.

로동동원 김학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대표단 도착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부주석 진중홍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대표단이 1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최진수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임시대사 리경강이 맞이하였다.



몽골전략연구소대표단 귀국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드. 간바프스장국 대표단으로 하는 몽골전략연구소대표단이 16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김홍호가 전송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오만추장에게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까부스 빈 사이드 오만추장국 추장에게 8일 리혁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정주철도분국에서 중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분국에서는 일군들부터가 앞장서서 시대의 진군가들이 일어나도록 울려 퍼지도록 하는 한편 모든 졸업생들이 중중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정주철년역, 정주철길대, 정주철관차대를 비롯하여 분국의 수습생들이 출연하는 예술소품경연이 진행되었다.

다채롭게 진행되는 중중문화예술활동은 일군들과 수습생들이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고무하고있다.

로동동원 김학남

조국통일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빛나는 과시

전쟁광신자들의 본색을 드러낸 망동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명도에 의해 전진하고 승리를 떨쳐온 자랑스러운 애국운동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송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조국통일운동을 자그마한 혼들림이나 탈선도 없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아버지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레옹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남조선에서 각계층 인민들의 조국통일운동이 날을 따라 높아지는 가운데 4월인민봉기가 일어났다. 미국의 식민지파소송자와 특색 《정권》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항쟁에 의해 국악한 민족반역자인 리승만역도는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말았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그 이후의 사태발전은 미국의 간섭과 지배가 계속되는 한 그 누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았다 하더라도 행편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운동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섰다.

바로 이러한 정세발전의 추이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우리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시었다. 하여 주체 50 (1961)년 5월 평양에서는 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통일위원회 결성

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는 조국통일위원회를 보다 힘있게 추진시킬 사명을 지닌 상설적인 조직으로서 조국통일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이 내외에 선포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운동을 다그치기 위한 성명파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동일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면서 그에 기초하여 매 시기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위원회를 위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벌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위원회는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통일위원회가 자기 활동에서 이룩한 성과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빛나는 과시이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운동을 위한 길에 쌓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수령님께서 우리 겨레에 남기신 고귀한 유산이며 나라의 통일위업 실현의 튼튼한 밑천이다. 한평생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실행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조국통일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운동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을 발표하시고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 선언을

마련해주시어 우리 민족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겨레는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다. 오늘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적범위로 확대강화되고 더욱 굳게 결속되고있으며 조국통일3대헌장 세력의 도전을 뒷받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운동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이행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의지는 날로 더욱 역세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내외분열주의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도록 조국통일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평화통일의 전향적극면을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앞에 내세는 중대한 과업이다.

지금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외세와 아합하여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반대하면서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세계통일》야당을 실현하기 위해 피노이 되어 날뛰고있다. 남조선 집권세력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제안과 성의있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대결정책을 강행하고있으며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날로 강화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커다란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책동으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고 전쟁위험이 고조되고있는 오늘날에 현 정부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

쳐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책임을 다해나갈것을 결심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은 조국통일과 민족단합의 불멸의 기치이다. 우리 겨레는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절감하였다. 해외의 온 겨레는 6. 15 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비롯한 주체적인 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간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자주통일의 기치로 변함없이 추구하고 그 시행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해외의 온 겨레는 침략적인 외세와 손을 잡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로 몰아가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

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어리석은 체제대결책동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더욱 굳건히 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광범한 인사들은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단면연합을 적극 실현해나감으로써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고조시키고 분열주의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뒷받치려야 한다.

최세의 선군정권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뜻고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뜻을 따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단결된 힘이 있기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필승 불패이다.

북 은 회

염미전 남조선에서 피뢰극장부 장관을 비롯한 합동참모본부의 장, 목, 해, 공군 참모총장, 군단장급이상 군부우두머리들이 참가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 것이 열렸다. 여기에서 피뢰극장부 장관은 그 누구의 《군사적통행》에 따른 《대비태세》를 운운하며 그 무슨 《전투형준대육성》에 모든 힘을 다하라고 고아냈다. 이지는 특히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문제를 입에 올리며 서해상에서의 《현존위협》에 대한 대비태세강화》를 역설하였다. 피뢰들의 이번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그 누구의 《위협》이라는 간판하에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또 하나의 위험한 전쟁모의이다.

대우기 엄중했건 리명박역도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북은 적》이라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졸개들을 몰아댈것이다. 이것은 전쟁광신자로서의 역도의 본색을 날달이 드러낸것으로서 최근 날로 무모해지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기를 부추기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명목히 보여주고있다.

피뢰 조선반도의 정세는 북침야망에 사로잡힌 피뢰호전광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처하였다. 북남관계는 풍지박산나고 이제 남은것이란 전쟁밖에 없다는 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우려이다. 이처럼 험악한 사태를 몰아온 장본인은 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정세를 더욱 격화시켜온 남조선호전광들이다. 최근에만도 그들은 피뢰군의 작전효과를 높인다는 구실밑에 《국방개혁 307계획》을 무너내고 군부개편을 다그치는 한편 미국과 함께 각종 전쟁발사준비도동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전쟁발사의 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 우리의 인내성있는 긴장완화노력이 없었더라면 조

송 영 석

자주통일투쟁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의 통일운동가들이 6. 15 공동선언이행과 북남대화개제를 위한 자주통일운동방향을 구상하고 11일 피뢰통신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이번 개각때 통일부 장관을 류임시키려는 4. 27보판선언에서 보여준 민심을 따르

지 않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계속할 방침을 보여준것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최근 북남간 대결이 날로 심화되고있는것은 《정부》가 6. 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미국, 일본상전들과의 야합하여 핵선제공격수단까지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계속 강행하고있기때문이라고 단죄화

하였다. 그들은 남북대화의 즉시 개개, 통일부 장관포진, 남북화국대결정책철폐, 미국과의 합동군사실습중지 등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통일단은 통일투쟁에 돌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교조선군에서 위훈을 떨쳐가는 조국청년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 단장이 찬양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 단장 정희철은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국청년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체류기간 재일 인상깊은것은 조국청년들의 투쟁기초였다. 청년들은 폐기와 열정에 넘쳐 대학진, 대비약을 이룩하고있다. 최첨단조선건설과 남북청년화학연합기업을, 대동강과수 종합발전 등을 돌이키면서 그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용

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모두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조국땅 곳곳에 일떠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마디에는 청년들의 헌신적노력이 깃들여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발을 휘날리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는 조국청년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청년문제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조국에서는 이 문제가 빛나

게 해결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셨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을 조국로 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명시를 뜻키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은 계속 혁신하고있다. 우리는 그들의 발걸음에 맞추어 애국의 대를 잇듯이 이어 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

얼마전에 있던 리명박의 도이쉴란드행까지 애도이쉴란드동포들과 그 나라의 환경단체회원들이 역도가 도착하게 되어있는 장소에서 그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그런데 이때 단평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정세범의 괴한들이 나타나 그들의 시위를 가로막았다. 이자들은 현지경찰들이 제지하자 황황히 도망갔다고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내외에서는 괴한들을 청와내나 도이쉴란드주재 남조선대사관과 편지시켜보았다. 실제로 리명박의 앞잡이들이 그의 비위를 상하게 할것이 두려워 이따위 망동을 부린바 없다.

사건은 그야말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는 속담을 편상시키는 망동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미국의 미천소고기 수입책동을 반대하여 초보사위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남너로스 가림없이 방패와 곤봉으로

마구 두들겨패고 지어 어린이를 태운 유모차에까지 물대포를 쏘아대며 폭압에 팔기를 부린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에 반기를 들자고 하여 통상적거점들의 통상 투쟁을 투쟁대무렵을 투입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나중에는 불례외국인 파소살인기도 바로 그들이다. 폭압이 없는 한시도 살수 없는 이런 보기 드문 파소광들이 해외에 나갔다고 해서 그 더러운 장폐기질을 억제하였는가. 바빠맞은 남조선당국은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모른다.》는 식으로 수염을 뺄 내리썰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저들의 추악한 파소적책동을 가리우기에는 너무 발은 수악 아니겠는가.

제 집안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파소광행위를 일삼는 리명박일당이야말로 민족의 망신거리이다. 은 정 철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미더운 세대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조국과 민족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탬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올해는 총련 조선대학교의 창립 55돐이 되는 해이다. 55년의 자랑스러운 년륜을 새겨오던 나날에 총련 조선대학교는 애국위업을 떠메고나갈 수많은 역군들을 훌륭히 키워냄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큰 1만 5천명에 달하는 이 대학 졸업생들은 총련의 역센 기둥이 되고 굳건한 대들보가 되어 애국위업의 앞장에서 일 해오고있다.

얼마전 대학에서는 제 53기 졸업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졸업식에는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의 최고전당에서 여섯가지 자라나 마칠때 애국의 초소로 떠나가게 된 졸업생들의 긍지와 애국, 환희로 세차게 열레 하고있다.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연단에 오른 정치경제학부의 문형준장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굴함없이 뽀

여섯한 조정지도원이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기대를 인제나 잊지 않고 앞으로 꼭 훌륭한 총련일꾼으로 자라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정치경제학부 졸업생인 박수복청년은 총련 후주시마조선초중급학교부터 오늘까지 집을 떠나고 무려 16년간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였다. 금강보현 후주시마지사에서 사업 하는 그의 어머니 송정옥녀성은 수북이가 어서빨리 틈틈하게 자라나 총련 애모리현분부 위원장이었던 외할아버지처럼 앞으로 꼭 미미고 훌륭한 총련일꾼이 되기를 꿈에다 소원하였었다. 어머니의 뜻대로 박수복청

년은 이번에 후주시마에서 조청일꾼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그는 더 많은 청년들을 총련총련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오기 위하여 애국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품고있다. 후주오카현에는 이어선용 조합에서 사업하게 된 경영학

부 졸업생 송성일청년에게도 사업이 있다. 그는 4년전 한 일본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쳤는데 인문심사에 나온자의 민족차별적인 언행에 격분하여 시험장을 뛰쳐나온 후 보란듯이 총련 조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역시 어서빨리 초소로 달려가 동포들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가득차있었다.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괴문을 나서는 그들모두의 가슴속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서 맹추운 빛내일 듯눈은 열정이 맥박치고있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총련조직과 동포사회의 뜨거운 믿음과 기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생의 기개를 높이 떨치려는 미미운 세대들을 동포사회는 뜨겁게 축복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수많은 인민들이 출몰하는 가운데 6월 15일 남조선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5. 1절투쟁이 대규모로 진행된 사실이 언론인민을 반박하는 현 집권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거두어 모을 수가 없었다.

남조선의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5. 1절투쟁을 벌이는데는 5. 1절투쟁이 대규모로 진행된 당국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는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존의 권리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당국의 악정을 끝장내고 근로대중이 주인된 정의로운 사회를 안아주기 위해 파란만장 투쟁을 벌여왔던 것은 백년 정당이다. 김 정 옥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위기에 처한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가 무단

얼마전 총련 후주오카현에서 무단이란 창립 45돐을 맞은것을 기념하였다. 가무단이 준비한 특별공연 《나래-빛나는 우리들의 미래》에는 동포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주체 55 (1966)년에 창립된 가무단은 지난 45

년 동안에 이미 전쟁의 불길에 치우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군부대거리들은 《현존위협》이니 뭐니 하고 터무니없이 우리를 겁고고있다. 이것이 긴장격화와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전쟁도발책동을 합력하함으로써 거어 북침야망을 실현해보자는 흉심의 발로라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서해상에서 집중적으로 감행되고있는 피뢰호전광들의 군사적움직임 놓고보면 그것은 명백하다. 3월에 이이 열거된 연평도와 백령도일대에서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을 벌여놓은 남조선군부는 오는 7월에는 백령도일대에서 침략의 선전대로 악명높은 미해병대와 연합해병대훈련을 벌여놓으려고 획책하고있다. 또한 조선서해 5개 섬에 침략부력과 전쟁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곳을 북침공격기지로 전환시키고있다. 피뢰호전광들이 조선서해상에서 감행하고있는 북침불장난소동은 임의의 시각에 실현으로 번져질수 있다. 피뢰들의 이번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조선서해에서의 《조선대비태세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된것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평화의 위기를 자제력을 요망한다면 그보다 어려울것은 없다. 우리의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바라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다져온 힘과 정신력을 총출발시켜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어야만겠다.

남조선호전세력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탐욕으로 보고 무분별한 전쟁도발소동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송 영 석

대중적인 실업을 몰아온 반인민적로동정책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위기에 처한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에게 온갖 특혜를 아끼지 않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이 《장부자정권》이라는 별명이 붙은것은 정정유착이 얼마나 우습한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 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시장만능주의도 그렇다. 시장만능주의하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수요에 따라 생산과 유통, 판매가 실현되게 된다. 당국은 재벌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것을 조장하고있다. 결과 남조선에서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있다.

당국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에 의해 남조선에서 경제가 위축박죽이 되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는것은 필연적이다. 지금 남조선경제의 명줄이라고 하는 수송이 급격히 감소되어 무역적자가는넘어치 않을 지다보니 중소기업들이 추사지 못하고 무리로 파산되고있다. 이로 하여 대중적인 실업이 만연되고있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대군과 비정규직근로자들, 날을 따라 늘어나는 자살자들과 방랑자들이 거리를 메우는 이 비참한 현실은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의 산물이다. 남조선당국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다. 보수당국이 지난 해에 노동자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사업을 편만, 감독할 책임을 지장사태 단계에 긴급한조치로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노동자들의 생명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되게 못하고 오히려 실업자로 전락되거나 만성직을 하고있어서 시달리고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난문제로 되고있다. 대학졸업생자 곧 실업자로서 되고있고 《이태백》(20대 태반이 배우진달)이라는 말이 이나돌고있었던만 보아도 보수당국의 반역론치로 경제파국이 심화되고 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있다는것을 잘 알 수 있다.

남성들은 해고의 첫번째 대상으로 되고있다. 재벌들의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지난 1월에만도 남성들의 일자리가 8만 4000개나 줄어들었다. 특히 20대, 30대의 남성들이 무리로 해고되고있다. 생활고에 시달 리고 따라 해고되는 길에 올라선 여성은 125만명을 기록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전하면서 남조선의 한 방송은 보수당국의 집권하에서 《없어지고 줄어든것은 일자리이고 늘

어났것은 실업자이며 뛰어들것은 물가》라고 개탄하였다.

반인민적로동정책으로 실업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당국은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밑에 구조조정, 임금삭감, 비정규직대정책을 계속 추진하고있다. 이로 하여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고공과 회성은 날로 커지고있다. 만일 지금 남조선당국이 추진하는대로 비정규직기간이 4년으로 고착되는 경우 노동자들은 언저리를 빼앗기고 실업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비록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더욱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들은 그야말로 죽음의 낭떠러지에 서게 된다.

반인민적악정은 대중적항거를 불러 일으키기마련이다. 남조선의 민주로 총과 로총은 지난 4월 2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악정을 규탄하는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시국선언에서 현 《정권》이 집권한 후 사회는 과거 독재시대로 돌아갔다고 개탄하였다. 집권세력이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일삼으며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적실현을 가로막고있다고 단체들은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당국의 친재벌정책을

청년학생단체에 대한 폭압을 규탄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가 6일 《리명박과 공안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야말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4월 6. 15 공동선언인실천 청년학생단체를 대상으로 감행된 공안세력의 파소적폭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공안세력이 지난 시기 단계가 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해 북측과 접촉한 사실을 두고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우며 탄압을 가하고있다고 성명은 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이번의 반인민적적행에 대해 민중앞에 사과하고 탄압소동을 일으킨 관계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현 《정부》되건, 《한나라당》해, 파조기구책 폐를 위해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강조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남조선청년들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남조선청년들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남조선청년들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남조선청년들

